

“이순신 길 걸으며 즐거움 느끼고 자신만의 가치관 만들었으면”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자원봉사대회 개최

강정희 전 교사 ‘명랑 10대, 명랑 챌린지’ 출간...이우철 사진

지난해 여름 뜻있는 교사들이 ‘조선수군 재건길’ 걸었다. ‘조선수군 재건길’은 1597년 정유재란 중 백의종군한 이순신 장군이 군사와 군선 등을 복원하며 진주에서 진도까지 나아갔던 노정을 고증해 다듬은 길이다. 교사들이 22일간 501km 구간을 완주한 이유는 아이들과 함께 걷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교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였다.

올해 국어교사로 퇴직한 강정희씨 역시 걷기에 합류해 몇 구간을 함께 걸으며 교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 씨가 조선 수군 재건길 걷기 여행기이자 안내서 ‘명랑 10대, 명랑 챌린지-학원 대신 순타이고 501 프로젝트’를 펴냈다. 사진과 영상은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했던 이우철 전 미술교사가 담당했다.

“요즘 아이들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뚝으로 무언가를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찾았으면 합니다. 휴대폰을 접고 자연을

느끼며 많은 것들을 생각한다면 더 없이 좋지요.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걸을 수 있도록 이순신과 관련된 이야기 뿐 아니라 인문, 예술, 경제, 생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책을 구성했습니다.”

책은 학교에서 지침서로 사용해도 좋고, 아이들과 의미있는 나들이를 염두에 둔 부모들에게도 좋은 길라잡이가 될 듯하다. 1장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 2장은 걷기와 읽기, 글쓰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 3장은 교사들이 걸었던 22구간의 여정에 ‘난중일기’와 의미있는 지점의 소감을 함께 써내려갔다. 책은 무엇보다 재미있게 읽힌다. ‘원조 K슈퍼스타 이순신’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는 흥미롭고 길 위에서 만나는 예술인들 이야기, 함께 들으면 좋은 플레이리스트, 독서목록, 필사노트 등도 눈여겨 볼만하다. 아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담겼다.



을 거예요. 길은 또 다른 의미의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몸 근육도 키우고, 마음 근육도 키우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저도 손자가 좀 더 크면 꼭 같이 걸어보려합니다.”

강 씨는 이번 책을 쓰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교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청소년미래재단(원장 양미란)이 지난 7일 '2024년 전남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 및 청소년포상제 포상식'을 재단 다목적 강당에서 개최했다.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제공>

IBK기업은행, 남부대에 발전기금 6000만원 전달



남부대학교(총장 조준범)는 지난 5일 남부대학교 대학의실에서 IBK기업은행 대학발전기금 기탁식을 개최했다.

두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IBK기업은행 호남지역본부(본부장 조민희)는 6000만원(3년 총액)의 발전기금을 남부대학교에

기탁했다. 이어 IBK기업은행 일각지점에서는 남부대학교 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준범 총장은 “대학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기탁해 준 IBK기업은행에 감사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미래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BTS 제이홉 “고향 사랑은 쪽~” 복구에 고향사랑 기부금 전달



기부 금액은 1인당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기부한도액인 500만원이다.

문인 복구정장은 “자랑스러운 지역 향우인 제이홉의 기부와 복구와 고향사랑기부제 관심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뜻깊은 기탁에 동참해주신 제이홉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소중한 기부금은 기탁 취지대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안동규 조선대 교수, 한국기계공학회장 선출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 기계공학과 안동규(사진) 교수가 한국기계공학회장 추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년.

안 교수는 적층제조(3D 프린팅) 공정·응용 기술개발, 금속-플라스틱 성형 공정·금형 개발, 초경량 기능성 구조 개발 및 CAD-CAE 분야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안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대한기계학회 학술상, 한국정밀공학회 현충공학상, 대한기계학회 주봉학술상,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장상 등을 수상했으며 스탠포드대학에서 매년 선정하는 세계 상위 2% 과학자에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안 교수는 “앞으로 대한민국 기계공학과 생산공학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 모델을 수립하고, 우수 연구 인력을 배출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전인철 동신대 교수, 대한시과학회 회장 당선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전인철 교수(학과장·사진)가 대한시과학회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최근 개최된 대한시과학회 정기총회에서 전 교수는 학문적 업적과 리더십으로 향후 대한시과학회의 발전을 이끌어가길 적임자라는 평가 속에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 교수는 활발한 학회 활동과 함께 광학 및 안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업적을 쌓아왔으며, 특히 안과학 및 시과학의 융합 연



구를 통해 학문적 지평을 넓히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전인철 교수는 “학계와 산업계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시과학 연구 환경 속에서 학회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TV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레블출력(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친절한 선주씨(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30 KBS 뉴스 930	30 KBS 뉴스 930	30 신데렐라 게임(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00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앙코르 한강(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00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앙코르 한강(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헬로키티 TV생물도감	30 잘 먹고 잘사는 법 플러스
00 KBS 뉴스 12	00 KBS 뉴스 12	1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 더 탄탄대(재)	15 건강의 재구성 썰북(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00 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 동네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00 KBS 뉴스 10 KBS네트워크 기획 <블록·식와 탐과 꿈을 싣고>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25 뽀빠뽀 좋아좋아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00 전국을 달린다(재) 10 에너지의 새바람 해상풍력(재)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출동! 유우구조대(재)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출동! 유우구조대(재)	55 기본 좋은 날(재)	00 뉴스브리핑
00 더 보드(재)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TV 유치원(재) 30 어린이 동물미비(재)	55 5시 뉴스와 경제	00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kbc다큐 <한강, 그 문학의 힘>(재)	00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kbc다큐 <한강, 그 문학의 힘>(재)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라피(재)	00 라이프맨 15 비바 프렌즈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0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한강작가 특별인터뷰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더 프레지던트 스페셜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크740	50 신데렐라 게임	05 친절한 선주씨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50 SBS 8 뉴스
30 결혼하자 맹꽁이!	30 셉템브사의 비밀		30 KBC 8 뉴스	30 KBC 8 뉴스
00 KBS 뉴스 9	50 스모킹 건	00 선을 넘는 클래스	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00 시사기획 창 50 KBS 뉴스라인W	50 KBS 드라마 스페셜 2024 <발바닥이 뜨거워서>	20 특집 100분토론	20 트만 나면	20 트만 나면
30 영성앨범 선(재)		40 중계방송 제124회 노벨상 시상식 <한국 문학, 세계와 만나다>		
00 중계방송 제124회 노벨상 시상식	10 아이 러브 스포츠 35 나라의 가수 인 스페인 핫클럽 55 KBS 재난방송센터		00 중계방송 한강 노벨문학상 시상식 50 열린예술무대 뒤(재)	00 중계방송 한강 노벨문학상 시상식 50 열린예술무대 뒤(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8:1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30 교육대기획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귀하신 몸	19:20 고향민곡
07:00 예교와 친구들 수리수리 넘버랜드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앙코르 특집방송 - 문학산책
07:15 모두 함께 버스누!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꿈꾸던 동화 속으로 덴마크 페로 제도 -아마도의 땅>
07:30 슈퍼월드 일렉트릭 히어로즈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21:35 한국기행 <현지인처럼 살아볼까? 2부 디스 이즈 내와리>
07:45 메탈카드봇 S강철의 귀환	15:1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21:55 건축탐구 - 집
08:00 덩동명 유치원	15:55 블럭스	22:50 EBS 다큐프라임
08:20 한글용사 아이야	16:10 덩동명 유치원(재)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8:35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16:30 페퍼 피크	
08:50 샤샤 앤 마일로	16:40 마사와 곰	
09:20 자이언트 팽TV	16:55 슈퍼월드 일렉트릭 히어로즈(재)	
09:40 박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2	17:10 한글용사 아이야(재)	
10:30 한국기행	17:40 메탈카드봇 S강철의 귀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0일 (음 11월 10일 戊申)

<p>36년생 약조건이 오히려 호재를 부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48년생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60년생 예기치 않은 지출을 키우는 일이 터지겠다. 72년생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다. 84년생 실제보다 더 부풀려진 것임을 참고하라. 96년생 계획대로 추진해도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24, 71</p>	<p>42년생 반드시 확인해야만 급락하는 형세를 방지한다. 54년생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날이다. 66년생 빈대 집으러다가 초가삼간을 태울 수도 있다. 78년생 분수와 현태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야겠다. 80년생 흉운이 보아 왔다면 문제가 있다. 90년생 겉치레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진정한 실속을 찾아라. 02년생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간 셈이다. 행운의 숫자 : 16, 90</p>
<p>37년생 생소한 것에는 조심해야 하느니라. 49년생 가끔씩 빨리 시작해야만 겨우 끝낼 수 있는 바탕이다. 61년생 지체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속히 조치하라. 73년생 있는 그대로 판단해야 실수가 없을 것이다. 85년생 제3자의 관점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라. 97년생 어두운이 사라지면서 희망장 장애가 밝아 온다. 행운의 숫자 : 11, 64</p>	<p>43년생 간절적인 관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55년생 참으로 귀한 이가 매우 소중한 것과 관련하여 주리라. 67년생 분수와 현태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야겠다. 79년생 초심이 머지않아 바뀔 수도 있다. 91년생 필요에 따라서는 연기자가 될 수도 있어야겠다. 03년생 간절히 소망함당 이루어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3, 58</p>
<p>38년생 결과적으로 남 좋은 일만 하는 꼴이 될 수 있다. 50년생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음을 알라. 62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있으니 몸을 낮춰 지혜를 구하라. 74년생 학수고대하여 왔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86년생 바퀴 달린 것은 전부 조심해야 하느니라. 98년생 주변의 문제와 관련되어질 수다. 행운의 숫자 : 37, 97</p>	<p>44년생 빨리 조치할수록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56년생 형식적인 면은 멀리하고 실질적인 점을 중시해야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68년생 기회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니라. 80년생 흥은 가고 길사가 접근하고 있다. 94년생 다소 자극을 줄 필요는 있다. 04년생 주변으로부터 크게 주목 받을 수 있는 행운이 따른다. 행운의 숫자 : 39, 56</p>
<p>39년생 치열한 속에는 후유증도 따르게 되어 있다. 51년생 순풍의 해류에 항해하고는 있으나 해저의 암초도 잘 살펴보자. 63년생 영귀함이 따르는 행운이 있다. 75년생 모순과 단차 투성이므로 빨리 포기할수록 이익이다. 87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능률적이다. 99년생 주변의 사정과 상관없이 의연하게 임하면 그만이다. 행운의 숫자 : 49, 76</p>	<p>45년생 지나친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오만을 야기할 수 있다. 57년생 행하고 싶지 않거나 잠자코 있는 것이 백만 닢이다. 69년생 머지않아 전염모가 드러날 것이니 조급함 가라. 81년생 생산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형상이다. 93년생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뜻한 바를 이루리라. 05년생 바쁜 게 뭐든 만큼 소기의 결실이 따른다. 행운의 숫자 : 13, 59</p>
<p>40년생 속단은 연쇄적인 폐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52년생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오는 이가 있겠다. 64년생 자신이 마음먹었던 대로 진행해도 지장이 없겠다. 76년생 이익이 생기는 하지만 불만족스러울 것이다. 88년생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드러나게 되리라. 00년생 탄력이 붙을 때 집중적으로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 28, 85</p>	<p>46년생 반드시 원인을 찾아내야만 동시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게 된다. 58년생 본격적인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70년생 견주어 본다면 한 눈에 쉽게 드러나리라. 82년생 기꺼이 수렴하는 것이 백만 닢이다. 94년생 일제 재고의 여지가 없으니 집착을 버리는 것이 맞다. 06년생 하찮게 여겨 왔던 바가 행운과 연결되는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38, 82</p>
<p>41년생 효율성의 관점에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53년생 순풍의 해류에 항해하고는 있으나 해저의 암초도 잘 살펴보자. 65년생 공들여 왔던 일에 대한 희소식이 들려올 것이니라. 77년생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능히 버텨 낼 수 있을 것이다. 89년생 재만사가 같하니 자신감을 갖고 행동하라. 01년생 실추적인 가치를 구하라. 행운의 숫자 : 09, 67</p>	<p>35년생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라. 47년생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니 예의 주시하라. 59년생 제 뜻이 충분히 반영되어 충족하겠다. 71년생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틀림없을 것이니라. 83년생 얼굴에 함박꽃이 피고 너털웃음이 절로 나는 경사가 보인다. 95년생 다수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순조롭다. 행운의 숫자 : 21, 54</p>